유가 진정시킨 트럼프의 '종전 임박' 발언, 롤러코스터 증시 상승 전환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공포심리 속 출발한 증시, 장후반 분위기 급반전

- 미 증시는 DOW +0.50%, S&P500 +0.83%, NASDAQ +1.38% 상승
- 주말간 산유국 생산 중단 등 유가 폭등과 'S 공포' 속 증시 약세 전개. 그러나, G7 비축유 방출 논의 소식과 장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종전 임박 시사 발언 후 유가 진정 및 기술주 중심 증시 상승 전환 마감
- WTI $85.1(-6.4%). 당일 최고 $119 까지 상승 후 하락 전환
- 국채금리 하락전환 10Y 4.098%(-3.5bp), 2Y 3.550%(-0.6bp). 달러인덱스 하락 98.74(-0.25%)

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주요국 및 트럼프의 대응

- G7 에너지장관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3~4 억배럴 규모 전략비축유 방출 논의. 해당 소식에 유가 상승세 꺾이며 1 차 진정. 다만 G7 은 아직 비축유 방출 단계는 아니며, 유가안정조치를 준비한다는 입장
-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에 유가 $80 대로 하락. 전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 소식에 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가능성도 제기
- 장마감 후 진행된 트럼프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주 내 종전은 아니나, 곧 끝날 것이라고 답변. 이란 지도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, 미 해군은 때가 되면 호르무즈해협 선박을 호위하겠다고 밝힘. WTI 선물가격 $90 부근으로 반등중
- CFRA 리서치 샘 스토벌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분쟁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나, 금일 반등은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

반도체 중심의 반등
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3.93%. 이란전쟁 발발 후 유가 상승과 생산비용 확대 압박에 약세 보이던 반도체업종의 반등 뚜렷
- 한편,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의 AI 모델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에 대해 불법적 보복이라 반박하며 취소 소송 제기

특징주: 이란 사태에 따른 변동성, 메모리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+5.1%	엔비디아 베라루빈용 HBM4 공급망 제외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주가 약세(반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잠정 포함). 다만 종전 기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HSBC, UBS, Citi 등 주요 IB들이 일제히 목표주가 상향하며 주가 상승
SNDK	샌디스크	+11.6%	종전 기대감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메모리 업황 기대감에 주가 강세
AMZN	아마존	+0.2%	로보택시 부문 자회사인Zoox가 미국 자율주행 택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, 미국 내 기존 8개 → 10개 도시로 시험주행 지역 확대
CVX	쉐브론	-0.3%	종전 기대감 및 유가 대응책 기대에 90달러선 아래로 하락한 유가에 연동
VRT	버티브	+9.3%	S&P 500 지수 분기 리밸런싱 결과 동사 신규 편입(3월 23일 발효) 소식에 주가 강세. 루멘텀(+14.7%), 코히런트(+7.0%), 에코스타(+3.5%)도 편입
HIMS	힘즈앤허즈	+40.8%	노보노디스크가 자사 비만 치료제를 동사 플랫폼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에 강세